**시라카미 산지 세계유산센터 （후지사토관）**

세계유산센터 후지사토관은 시라카미 산 아키타 쪽에 있는 비지터 센터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시라카미 산지에 관한 정보 수집과 활동의 거점이기도 합니다.

1993년 시라카미 산지의 원생지역 16,971헥타르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너도밤나무 원생림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중 4,300헥타르 이상이 아키타현에 있으며, 나머지는 북쪽으로 아오모리현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1998년 개관한 후지사토관에서는 시라카미 산지의 다양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지형, 동물, 식물에 대해 일본어와 영어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전시물과 지역에 대한 영어 해설을 제공할 수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또한, 하이킹 코스와 지역 명소, 체험형 액티비티, 특별 이벤트에 관한 지도와 팸플릿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어가 가능한 가이드는 하이킹 투어를 안내하거나 체험형 액티비티 참가를 준비하거나 산 방문에 대해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개관시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이고,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수요일)은 휴관합니다. 12월부터 2월까지의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이고, 월요일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수요일까지 휴관)은 휴관합니다.

오시는 길： 세계유산센터는 후타쓰이역에서 차로 약 20분 소요되며, 현도 317호선 도로변에 있습니다.